

# 敦煌莫高窟 菩薩像의 頭飾과 天衣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최영순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명예교수 이춘계

## 目 次

I. 서론

II. 보살의 기원과 의미

III. 막고굴의 기원과 종교문화적 배경

IV. 막고굴보살복식의 형태와 변화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인간이 사회문화적, 종교적 기타 여러 원인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복을 착용하여 왔음을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의복은 인간의 몸과 가장 밀접하고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의 자연적 조건, 종교등과 같은 인위적인 사회적 조건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복을 다양한 문화형태 속에서 복식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형성된 의복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주변과 상호교류를 통해 개성적이며 보편적인 형태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문화변용을 일으키면서 상호의존적으로 문화변형을 이루워 복식문화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면서 변화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변용 가운데 하나인 종교 또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활, 문화등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다. 그 가운데 불교는 자비

를 실천덕목으로 하여 각자 生死의 輪廻로부터 해방되는 涅槃에 드는 것을 교리의 근본으로 삼는 종교이다. 그 동안 佛衣라 하여 佛像의 衣에 관한 연구와 僧服이 주된 연구로 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가 大乘佛敎文化圈이라고 볼 때 菩薩服飾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짐으로써 복식문화의 일면으로 파악하는 것이 복식연구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인간역사에서 종교는 모든 역사흐름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복식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불교 문화는 모든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불교전파가 선진문화수용이었기 때문이다. 동서교통의 요충지인 동황은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 등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었다. 다양한 변화의 요충지인 곳에 오랜 기간에 걸친 窟이 형성 되면서 불교문화를 매개로 한 중국과 인도,이란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문화가 돈황예술속에 결집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을 중심으

로 宗教服飾을 조명해 보는 작업은 뜻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막고굴에 있는 菩薩像을 중심으로 복식의 변천 즉 頭飾(頭髮과 寶冠), 上衣(天衣·僧祇支·條帛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복식문화의 一端을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도판을 중심으로 해서 형태 변천에 초점을 맞추었고 자료는 文物出版社의 돈황 막고굴(1권~4권)을 중심으로 하였다. 北凉시대(421~439)부터 唐나라(618~907)까지의 菩薩服飾을 설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II. 菩薩의 기원과 의미

‘菩薩’이란 말의 사용시기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金石文資料에 의하면 탁실라에서 출토된 은판경에 쓰여진 菩薩窟이라는 것을 최초로 보고 있으며 기원전 2세기쯤에 보살이라는 말이 성립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sup>1)</sup> 점차 大乘佛敎가 흥기하면서 大乘思想과 함께 급속히 전파, 확산되었다. 大乘佛敎에서 종교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기는 것이 菩薩이다. 인도 산스크리트의 bodhisattva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漢譯한 것이 보리살타(菩提薩埵) 즉 菩薩이 bodhi(菩提)는 佛智, 佛道, 깨달음, sattva(薩埵)는 본질, 실체, 마음 또는 어떤 살아 있는 존재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2)</sup> ‘菩薩’칭호는 불교에서 專用한 용어가 아니고 고대인도의 모든 종교수행자들이 사용하던 것이었다고도 한다.<sup>3)</sup>

깨달음을 구하여 노력하고 있는자를 모두 보살이라 한다. 다른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성불

을 잠정적으로 포기한 佛로써 생사와 열반, 빈뇌와 보리의 경계를 떠나 부처의 속성과 중생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부처와 사바세계 사이를 잇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다.<sup>4)</sup> 多様な 衆生救濟를 위한 여러 方法과 밀교의 영향 등으로 수 많은 菩薩이 表現되었다. 그것을 變化觀音<sup>5)</sup>이라 한다. 따라서 佛像과 함께 보살상도 조성되었으며 그 모습은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조성되어 예배공양되었다.<sup>6)</sup> 菩薩像은 대체로 柔軟한 자세를 취하며 下半身은 주름을 넣은 裙을 걸치고 上半身은 裸體로 그 위에 天衣와 여러가지 瓔珞등으로 裝飾하고 연꽃, 寶瓶, 錫杖등의 持物을 들고 있다. 菩薩像은 所謂 三屈姿勢를 취하는데 이것은 인도 조각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치 춤추는 듯한 柔軟한 姿勢로써 身體를 3번 꺾은 形態를 말한다. 인도의 이러한 조각들은 간다라 미술에서 시작된 것으로 菩薩像은 敎理上 표현하고자 한 형태가 如來像과는 그 표현미가 다르다. 보살상의 원천을 싯달타왕자나 인드라와 브라마 같은 장엄한 신상의 용모에서 찾아보는데 당시 서북인도 주변의 귀족, 왕족의 모습을 採用한 것으로 그것은 당시 교단이 권력자들에게 의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sup>7)</sup> 이러한 전형적인 남성적 용모가 점차 부드럽게 표현되어 보다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女體를 띠게 되었다.

각나라와 시대에 따라 理想的인 보살상을 다르게 表現한 것을 볼 수 있다. 印度에서 菩薩像은 華麗하게 寶石으로 治裝한 王子를 理想的인 人間像으로 생각하였으나 漸次 5세기 굽타時代부터 女性化 傾向이 나타나다 8세기 이후로 가면 完全히 女

1) 박도화, 보살상, 대원사, pp.10-11.

2) 정명조, 문수보살, 동국대박사학위논문, p.38.

3) 최완수, 불상연구, 지식산업사, p.147.

4) 안운수, 보살상의 영락장엄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p.6.

5) 김석란, 11면관음상의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p.5. 재인용, 변화관을이란 대승불교의 1면1비의 인간적인 자태를 취하던 관음을 성관음 또는 정관음이라하는 초인간적인 多面多臂의 형상을 갖는 관음을 통털어 지칭하는 말.

6) 안운수, 앞책, p.8.

7) 杉山二郎, 불상, 柏書房, pp.111-112

體로 表現되었다. 또한 中國은 5세기 中國의인 樣式이 成立되면서 北魏時代부터 女性化 傾向이 일어나다가 8세기 盛唐期에 女體로 表現되었으나<sup>8)</sup> 晚唐에 이르러서는 얼굴에 수염이 그려지면서 성별이 더욱 모호한 형태로 발전한다. 또한 조각에 슬면에 있어서도 팔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女性的인 분위기의 菩薩像이 造成되었는데 그 理由는 慈悲와 威力의 신비한 힘을 나타내기에는 母性的인 女性像이 救援의인 菩薩의 一面을 나타내기에 適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Ⅲ. 돈황막고굴과 종교문화적 배경

중국의 邊方地域인 돈황은 漢代부터 지배를 받았으나 中原이 불안하면 여러 왕국이 일어나 각기 중계무역을 담당하곤 하였다. 5C초 북방의 北凉, 北魏, 西魏, 北周의 異民族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 후 唐과 티벳 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隋唐의 1C정도의 지배를 제하면 돈황도 언제나 중국본토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독립된 別天地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70년간의 티벳 지배하에서는 중국과 정치, 문화적으로 분단된 별개의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sup>9)</sup>

#### 1. 돈황막고굴

활발한 동서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던 돈황은 그만큼 정치적 변혁도 많았고 돈황막고굴의 벽화나 石佛, 塑像 등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意義와 문화적인 價値를 가지고 있으며 中原文化와

西方文化가 接觸하였던 문화의 요충지였다. 즉 漢代에 외국인 商人共同體가 돈황에 불교사원을 건립하였고<sup>10)</sup> 또한 중앙아시아를 횡단하는 실크로드의 분기점에 위치하여 各種緋緞, 陶瓷器, 茶, 製紙法, 養蠶業, 寶石 등이 서쪽으로 전해지면서 서역적 요소와 중국적 요소가 공존하였다. 돈황예술은 시대에 따라 宗教, 音樂, 兵器, 衣冠服飾 등에서 각기 다른 계층의 생활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더불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을 연구하는데 구체적인 형상자료를 제시하여 일정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돈황이나 쿠차 千佛洞 등에 존재하는 壁畫·佛像 등에서 서역 불교미술의 자취를 엿볼 수 있지만 특히 立佛像 등에서는 간다라 양식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쿠차지방이나 키질의 석굴벽화에서 인도영향은 물론 서아시아 즉 아랍적인 내용도 엿볼 수 있다.<sup>11)</sup> 이에 비해 투루판 등에서 볼 수 있는 벽화에는 중국과 투루크제 양식이 혼합된 복식의 형태 즉 東方風의 용모나 의상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양식은 印度式이고 벽화의 東方風 등은 당나라 이후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면에서도 문화의 潮流는 적어도 당나라 때까지는 전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sup>12)</sup> 따라서 돈황은 服飾이란 매개체를 통하여 동서문명의 교류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중대한 역사 산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크로드를 통한 문물의 교류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은 동아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초래한 불교의 전파이며 이에 따른 불교미술의 東漸이다.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실크로드 각지에서 대규모의 불교미술조영이 다 이루어 행해졌다. 아프카니스탄 핫다(hadda)에서

8) 안윤수, 앞책, pp.9-10.

디트리히 제켈著, 백승길譯, '불교미술'에서는 동아시아의 사고방식 즉 여성에 대한 격하사상으로 보살상을 남성상이라고 하였다.

9) アジア佛教史(中國篇), 佼成出版社, p.157.

10) 제인그리핀, '실크로드와 돈황의 보고' 미술사연구 10, p.77.

11) 오철환, '古代쿠차音樂考' 중앙아시아연구 1, p.278.

12) 渡邊照宏 지, 한경수 역, 불교사의 전개, 불교시대사, p.121.

많은 塑像이 만들어지고 바미얀에서 石窟寺院의 建造가 시작되었다. 아잔타나 바미얀에서 시작된 석굴개착의 유행은 서역을 통해 중국, 한국으로 전래되었고 우리나라의 석굴암이 그 결과이다.

돈황 불교석굴의 개착은 前秦, 建元2년(366)에 시작되었다. 막고굴은 4세기부터 14~15세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全長 1680m에 달하는 석굴군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약 600개이지만 塑像과 壁畫가 남아있는 窟은 492개에 이른다.<sup>13)</sup> 시대에 따른 돈황석굴의 개착을 보면 16국시대에 7굴, 北魏시대 14굴, 西魏시대 7굴, 北周에 15굴, 隋代에 94굴, 唐代에 279굴, 5대에 25굴, 宋代에 16굴, 西夏시대에 17굴, 元代에 9굴, 清代에 2굴 등이 造營되었다.<sup>14)</sup>

## 2. 종교문화적 배경

문화요충지였던 돈황을 통해 여러가지가 교류되었으나 그 가운데 종교를 통한 문화교류가 중요하게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종교문화적인 영향관계와 전파를 알아보려고 한다.

### 1) 서아시아 종교

서아시아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相對되는 것으로 아시아의 西部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범위는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西는 터키, 東은 아프카니스탄, 北은 카프카즈, 에르프르즈, 힌두쿠시 여러산맥을 둘러 싸는 선, 南은 아라비아 반도남단까지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sup>15)</sup> 아무리 훌륭한 사상도 그 시대와 배경을 초월할 수는 없다. 열악한 환경과 기후를 극복하고 부족한 물

품동을 얻기위해 자연과 異民族間에 생존을 위한 투쟁은 당연한 생활이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으로 고대 이란에서 나타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이다. 고대 이란문화의 정신적 지주인 조로아스터교(拜火教)는 古來의 諸神을 光明神과 暗黑神(안라마이뉴, Anra Mainyu)으로 생각하고 陰陽·善惡을 대립시켜 光明神(Ahura Mazuda, 아후라 마즈다)에게 귀의를 教義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근원은 스텝과 오아시스에서 전개된 이원적인 생활양식의 공존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즉 그들은 항상 그들을 침범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惡, 그들을 즐겁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을 善이라 하여 종교에서도 절대적 善神과 절대적 惡神을 대립시켜 惡을 이기고 善을 추앙하는 二元論의 宗教인 것이다.<sup>17)</sup> 聖火를 끊임없이 밝히므로 拜火教라 불리우고 6C 중엽의 北魏시대, 중국에 전래되어 隋. 唐때에는 東西交易의 융성과 이란계 서역인의 왕래와 더불어 소위 雜技가 隋唐시대에 유행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8)</sup> 조로아스터교의 전파는 경주일대에서 발견되는 西域石人像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으로의 전파가능성이 뚜렷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기독교·이슬람교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최후의 심판이나 극락, 지옥같은 말들은 페르시아인에서 나온 것이며,<sup>19)</sup> 大乘佛敎經典에 佛陀의 수식어에 光明이나 光輝 등 光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佛像에 光背가 없었던 것이 서북인도의 佛像에 광배가 기원전 1세기 후반 내지 2세기경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란계의 光明思想의 영향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20)</sup> 알렉산더대제의 침입(B.C. 330)

13) 鄧健吾, 敦煌莫高窟 3, 평범사, p.216.

14) 溫玉成 저, 배진달 역, 中國石窟과 文化藝術, 경인문화사, p.105.

15) アジア歴史事典 7, 평범사, p.227.

16) 민병훈, '중앙아시아' 한국복식12호, 단대출판, p.22.

17) 불교통신강좌4, 불교통신교육원, p.43.

18) 한국복식 12호, pp.23-26

19) 황원구, 東洋文化史略, 연대출판, p.150.

20) 한국복식 12호, pp.38-39

으로 페르시아와 함께 조로아스터교도 몰락하였다가 그 후 사산조페르시아왕조의 출현으로 다시 흥하게 되었다. 사산조페르시아는 그리스·로마적인 문화, 메소포타미아·인도 문화를 수용하면서 페르시아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서 사산조의 색다른 문화를 창조하여 오늘날 여러지역과 분야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 마니교는 3세기 전반 조로아스터교·유다 크리스트교 등의 종교와 사상을 절충한 종교로 조로아스터교의 二元論과 흡사하며 三位一體는 기독교의 영향, 輪廻思想은 불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東方으로 향한 마니교의 布教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唐의 축천후후(694)때 중국에 들어와 白衣 白冠의 무리로 불리며 祇敎, 景敎와 함께 西方渡來의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되었다. 이란적인 조로아스터교와는 달리 마니교는 다양한 면에서 異종교와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妥協性이 많았기 때문에 이란민족외에 多數의 信者를 끌어 들일 수 있었다. 9세기부터 중앙아시아의 주역이 되기 시작한 투르크계 유목민족인 위구르왕국에서는 한때 마니교를 國敎로 삼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돈황의 막고굴, 쿠차의 쿵트라 석굴사원, 베제크닉천불동 등에는 불교와 마니교의 二重窟이 형성되기도 하였다.<sup>21)</sup>

알렉산더대제가 인도를 점령하여 B.C. 324년에는 大帝國을 건설하여 헬레니즘 세계가 전개되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색은 그리스문화의 세계화와 동서문화의 융합으로 볼 수 있는데 알렉산더대제는 그리스식 도시 건설과 문화 보급, 종교정책을 통한 동서문화의 융합을 꾀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미술양식에서 특기할 것은 인도 서북부에서 시작된 간다라미술이다. 간다라는 페샤워르 일대의 평원을 지칭하는 옛 이름으로 漢나라때에는 罽賓이라 하였고 서방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동서문

화의 요충지로서 異民族의 침입이 많은 곳이었다. 간다라 불교미술의 역사는 기원전 6C 경 그리스계 王朝(박트리아)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리스神像의 彫刻美가 印度 佛陀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즉 간다라 불상은 불교적인 理想과 헬레니즘 技法의 융화로 생긴 것이다. 이러한 간다라 예술의 최전성기는 쿠산왕조의 카니시카왕의 치세를 전후해서 그 후 3C 중엽까지 계속되지만 직·간접적으로 모든 불교미술에 영향을 미쳐서 마침내 서역을 거쳐 중국, 한국으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 2) 불교의 전파

佛敎가 전 인도에 자리잡게 된 것은 기원전 3C에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 때로써 불교를 印度 全 地域은 물론 많은 布敎使를 스리랑카, 그리스, 이집트 등지에 파견하여 불교를 전파 신앙하게 하였다.<sup>22)</sup> 또한 인도 서북부에 쿠산왕국 당시 그리스·이란계 문화가 밀려 들어와 문화의 융합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불교도들은 佛陀神像의 조성을 피하였으나 중인도인들과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이후 인도에 들어온 그리스인들은 인도미술의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헬레니즘의 신들과 나란히 佛像을 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즉 佛像은 아폴로와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sup>23)</sup> 이와 같이 그리스神像과 흡사한 간다라식 미술은 쿠산왕조 때 가장 성행하여 불교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의 돈황석굴은 간다라식 미술의 영향을 받은 석굴이다.

쿠산왕조는 서역과 인도의 양쪽에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와의 문화교류 특히 불교의 전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역지방에 불교가 언제 전해졌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에 전래(1세기)되기전 상당히 앞서서 불교가 행해진 것만은 확실하고 쿠산왕조의 발달에 따라 동

21) 앞의 책, pp.26-34.

22) 불교사전개, p.99.

23) 벤자민 로울랜드 저, 최민영 역, 동서미술론, 열화당, pp.83-84.

서문화의 교류가 이 지방 불교의 유행에 박차를 가했음에 틀림이 없다. 10C 이후 회교문화를 수용하기까지 1천년간에 걸쳐 불교는 이 지역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 지역불교는 印度佛敎와 다른 西域佛敎라고 할 독특한 것으로 중국에 전래된 것이 초기에는 서역불교로서 전파과정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란문명의 영향을 부지불식간에 받지않을 수 없었다. 즉 종교도 문화전파에 있어 각 지역마다의 문화변용을 일으키며 極東으로 도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胡僧인 鳩摩羅什이 장안에 오고 法顯 등이 인도로 求法巡禮를 나서면서 인도의 불교를 직접 접하게 되었다.<sup>24)</sup> 불교가 중국에 소개된 것은 後漢明帝 때로써 AD 65년에 불교도들이 집단거주하였고 AD 130년에 그 당시 중국 장안에서 서역인 불교승려들이 평신도 집단을 이끌고 있었다.<sup>25)</sup> 중국에 처음 전래된 불교는 당나라 세력이 서역지방까지 진출하고 求法僧의 往來와 西域僧의 譯經事業과 經典과 佛像 등의 유입으로 중국적인 불교문화로 부흥시킬 수 있었고 또한 서방의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인도의 복합문화가 불교의 전래과 함께 수용되어 唐文化가 國際性을 띠게 되었다.

漢族에게는 불교가 外來사상이지만 체계적인 문화를 갖추지 못한 北方 5胡人들에게는 선진문화로 인식되어 새로운 종교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다. 따라서 불상의 복식에 대해 北魏의 皇帝衣服을 묘사한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는 漢族의

사대부 복식과 연관이 있다고 시사하기도 한다.<sup>26)</sup> 江南의 불교를 敎學 발전과 法師 형성을 특색으로 본다면 北地에서는 왕이나 고관이 행하는 사람의 건립, 불상의 조성 풍조가 일반민중에게 퍼져서 불교신앙단체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現世利益의인 觀音信仰<sup>27)</sup>이 널리 보급되었던 것이다.<sup>28)</sup>

한편 간다라로부터 東漸한 불상조각은 중국에서도 받아들여 불교건축물에는 불상이 조각되기도 하였다. 초기의 중국 불상의 조형에 인도나 서역의 불상양식은 물론 서역미술에 수용되어 있는 사산조페르시아미술의 요소 특히 장식적인 문양까지 첨가되어 복합적인 외래양식의 수용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독자적인 조각전통과 미의식이 가미되어 중국화된 불상양식으로 발전하였다. 대체로 중국의 불교미술은 외래양식의 수용과 토착화과정의 반복되면서 발전하였고 가장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시대가 北魏와 唐시대로서 특히 唐대에는 서방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더욱 국제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었다.

돈황은 중국이 외래문물을 접촉하는 초입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본토에서 한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돈황의 석굴은 불교가 중심이 되나 그 밖에 漢文化 특유의 전통이 가미되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복식이나 보관 등의 장식의 장은 초기에는 蓮華, 팔괘, 雲紋, 龍·鳳紋이 유행하고 隋代부터는 페르시아 문양을 흡수하여 圓環連珠紋, 페가서스, 狩獵紋 등이 보이고 唐 이후에는 葡萄紋, 石榴紋, 唐草紋 등의 식물문으로 나

24) 앞의 책, p.118.

25) Dirtrich Seckel, *The Art of Buddhism*, New York, Crown Pub, p.75.

26) 최정원, '北魏 佛像服制의 中國化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미술사연구 8, pp.253-256.

27) 관음신앙의 성립에 대한 여러가지설이 있다.

① 남인도의 남성신인 마가다가 대승불교에 흡수되어 성립된 설

② 기독교의 천국사상의 영향으로 성립된 설

③ 이란계 종교를 배경으로 남인도에서 성립된 설

④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인도의 토속여신이 대승불교와 융합하여 성립된 설

①② : 後藤大用, 《관세음보살의 연구》山喜房 1958. pp.305-309. ③ : 岩本 裕, 《관음의 표정》p.182. ④ : 박선영.

삼국시대 관음보살상에 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재인용. pp.3-4.

28) 野上俊靜의 4인 저, 권기종 역, 중국불교사, 동대출판, pp.48-49.

타난다. 이러한 것으로 여러 민족이나 종교의 영향, 미적 이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물의 S자식의 屈曲姿勢(三屈姿勢)등이 원천적으로 인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돈황의 것이 훨씬 野趣가 있어 오히려 ‘敦煌的’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漢化과정의 과도기로 보는 北魏晚期에서 北周가 망하는 6세기 말까지 약 670년 동안에 풍미하던 秀骨清像의 造形美觀이 돈황석굴에 진입하여 中原風格과 西域風格이 並存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종교는 물론 당시의 국제정세와 중원의 정치적 안정여부에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sup>29)</sup>

#### IV. 막고굴보살복식의 형태와 변화

돈황에서는 大乘佛敎가 우세하여 菩薩像을 많이 造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菩薩服飾은 본 연구에서 (1) 頭飾(頭髮과 寶冠) (2) 上衣(天衣, 僧袈支, 條帛)으로 분류하여 시대별로 특징적인 것을 주로 살펴보고 나머지 璽珞과 下衣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 1. 北凉(421~439)

###### 1) 頭飾

頭髮은 대체로 앞가리마에 어깨에 垂髮형머리 또는 앞이마에서 짧게 단발한 형태이다. 보살 寶冠의 형태는 寶冠, 三飾冠, 正面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sup>30)</sup> 北凉에서는 주로 寶冠과 三飾冠이 보이고 冠帶에 관띠가 늘어져 있다. 圖1-2는 보관이 정수리부위에 놓여있으며 관정면에 좌불상



圖1-1 272窟  
西壁龕內南北側菩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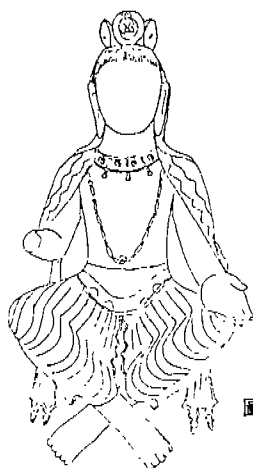


圖1-2 275窟 西壁交脚菩薩

이 조각되어 있다. 이와같이 관에 佛이 있는 것은 圖像的으로 觀音菩薩을 가리킨다. 觀音이 관을 쓴 것은 매우 이란적이며 서아시아적인 것으로 이란의 조로아스터교 여신 아나히타가 관을 썼다(圖 7)는 것을 文獻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31)</sup> 三飾

29) 실크로드 미술전, 국립중앙박물관, 1991, pp.67-69.

30) 崔永順, 韓國의 菩薩服飾에 관한 연구, 동국대석사학위논문. p.14.

寶冠: 머리전체에 둘러쓴 형태

三飾冠: 관 장식이 앞과 옆에 있는 형태.

正面冠: 관장식이 앞에 있는 형태.

31) 金剛秀友외2, 실크로드와 佛敎, 大法輪閣. 1982. p.245.

아나히타는 동이란에서 일어나 물과 번영을 담당한 여신.



圖8 샤프르2세 獅子사냥 銀製血. AD5C

冠은 圖1-1에서 볼 수 있다. 冠帶위에 타원형 장식3개가 부착되어 있고 관띠가 휘날리고 있다. 이와같이 머리뒤에 휘날리는 긴 띠는 왕공귀족의 징표로써 쿠차나 호탄의 벽화에서 왕의 머리장식으로 리본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sup>32)</sup> 사산조 裝飾工藝品(圖8)이나 印度菩薩像에서도 볼 수 있다. 장식물이 연속으로 부착되어있는 冠은 인도 굽타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33)</sup>고 하였다. 관띠가 늘어진 보관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더욱 장식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2) 上衣

나체인 상반신에 걸친 天衣는 머리뒤나 어깨에서 나부끼며 팔꿈치에서 한번 걸치고 길게 늘어뜨리는 일반적인 착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天衣는 고대인도조각상에서 나체인 상체에 긴 술이나 布類를 아무런 꾸밈없이 걸친 것을 볼 수 있다. ‘Dupatta’라는 것(圖 9)으로 어깨를 덮는 上衣로



圖9 바르후트 약사상. 前2C



圖10 아나히타女神裝飾 銀製壺一部. AD5C

써 머리에 쓰기도 하였고 優雅 또는 尊貴하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대체로 일반인이나 부유층, 왕실에서 남녀 모두 착용한 것이다.<sup>34)</sup> 또한 이것은 페르시아에서도 나타나는 것<sup>35)</sup>으로 아나히타여신이 장식된 銀製壺(圖 10)등에서 볼 수 있다. ‘天衣

32) 임영애, 서역불교조각사, 일지사, p.279.

33) 鄭禮京, 韓國반가사유상의 編年에 關する 一考察, 佛敎藝術, 194, pp.98-101.

34) G. S. Ghurye, Indian Costume, Popular Pralashan, p.67. 78. Sachidannand Sahay, Indian Costume Coiffure and Ornament, Munshiram Manoharlal. Pub. p.41.

35) 『魏書』「波斯傳」其俗丈夫...亦布巾帳 緣以織成 婦人服大衫 披大帳, 『舊唐書』「波斯傳」婦人亦巾帳裙衫 辮髮垂後



'라는 말은 중국으로 불교경전<sup>36)</sup>이 들어와 翻譯되면서 理想화된 것<sup>37)</sup>이라고 하였고 '天妙衣'라고도 하였다. 圖1-1은 대단히 긴 형태의 天衣를 뒷머리 부분에서 내려와 팔을 감싸며 운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양끝이 불고기 꼬리처럼 갈라져 있어 장식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前述한 페르시아 銀製 罽에 묘사된 아나히타의 天衣 끝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天衣에 무늬를 표현한 것도 길이에 꼬임을 나타내듯 직각되도록 나타내는 것도 비슷하다고 하겠다. 圖1-2는 톱니무늬를 넣은 襟장식을 한 것으로 어깨에 두르면서 밑으로 내려뜨리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양 끝이 일정하지 않다. 이와 같이 도련이나 끝단이 일정하지 않은 모습이 보살 衣服에서 대다수를 보이는데 이것은 바이어스 재단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바이어스재단같은 것이 天衣와 襟에서 나타나는데 보살의 유연한 자세와 어울리는 형상이라고 생각한다. 北凉의 보살 복식은 중후한 실루엣이 특징으로 앞가리마에 垂髮형과 단발머리이고 冠飾은 寶冠과 三飾冠으로 사산조 영향으로 보이는 관띠가 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띠는 점차 길어지고 수가 많아져서 장식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天衣 착용과 여러가지 垂飾物들은 간다라와 마투라 문화가 혼합된 인도, 페르시아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2-1 259窟 西壁龕外南側菩薩



圖2-2 254窟 南壁全部上室交脚菩薩

## 2. 北魏(439~535)

### 1) 頭飾

頭髮은 앞가리마에 垂髮한 머리카락이나 削髮이다. 前代와 다르게 頭巾을 볼 수 있는데 圖2-1은 頭巾을 쓴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사막생활에서 자생한 것이던가 기마유목민족인 北魏服飾 영향의 일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頭巾은 서민과 士

人을 구별하는 척도로 卑賤者의 대명사로 後漢以前에는 사용하였으나 魏晉南北朝에 이르러 보편화되고 여자도 두건을 착용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sup>38)</sup> 그러나 여기에서 보이는 두건은 한 장의 짧은 천이 머리뒤에서 주름지어 드리워져 있는 형태이고 일반서민들의 두건은 머리를 감싸서 정수리 부위에서 봉긋하게 보이는 형태로서 약간 차이가 있다. 물론 두건으로 정수리부위를 감

36) 妙法蓮華經 卷2, 譬喻品 第3...無數天子 亦以天妙衣...供養於佛 所散天衣 住虛空中 而自迴轉

37) 井筒雅風, 法衣史(主45), p.28.

38) 중국5전년 여성장식사, 京都書院, p.110



圖2-3 251窟 東壁菩薩



圖2-4 251窟 北壁前部菩薩



圖2-5 263窟 南壁後壁中室菩薩

산 후 남은 천을 뒤로 넘겨 보관을 쓰면 보살상과 같은 머리모양이 연출될 것이다. 보살상의 두건 형태를 魏晉南北朝 때 이민족 계통인 北朝官吏를 묘사한 陶俑에서 볼 수 있는데 얼굴만 남기고 옆과 뒤를 모두 長方형의 짧은 천으로 덮고 그 위에 半球형의 모자를 쓰고 있는 陶俑의 모습이다.<sup>39)</sup> 기마유목민족인 北朝王朝의 防寒用的 頭飾이 頭巾으로 변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頭巾의 형태가 약간 다르지만 고려불화 가운데 두건을 쓴 地藏圖는 두건으로 머리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나머지 천을 뒷머리에서 어깨까지 귀뒤에서 자연스럽게 내리고 두건띠도 마찬가지로 양어깨로 늘어뜨리고 있다. 이와같은 頭巾을 쓴 地藏圖는 우리나라와 돈황, 투루판에서 보이는 圖像으로 당시 투루판·高麗·敦煌 사이에 佛畫交涉이 이루어져 이와같은 圖像의 공통점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高麗史에 투루판 승려의 高麗往來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sup>40)</sup>고 하였다. 寶冠을 보면 寶冠과 三飾冠으로 볼 수 있다.

圖2-2의 보관은 사산조 영향을 반영하듯 대단히 높이 장식을 한 것으로 앞면에는 光明象徵의 日月飾, 左右로 樹飾이 있는 寶冠으로 우리나라 新羅金冠裝飾과 相通한다<sup>41)</sup>고 보고 있다. 日月立飾은 초승달 위에 球形을 얹고 좌우에 리본수식을 한 寶冠으로 400년경의 사산식 冠型이다. 인도나 페르시아지역의 태양승배토착신앙과 유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樹飾은 기후와 풍토에서 우러난 장식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것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유행하던 粧飾불보살의 冠飾에서 보이던 돌궐계의 특징으로 보기도 한다.<sup>42)</sup> 圖2-5, 6에서는 三飾冠을 볼 수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 圖2-5는 굽타와 사산의 영향으로 보이는 三飾冠으로 冠帶에 원형의 장식이 있고 그 장식중앙에 인도 터번장식에서 볼 수 있는 房飾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圖2-6은 전형적인 사산계 관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冠 꼭대기에 日月飾이 있고 관대 양끝에 식물문 또는 鳥翼飾으로 볼 수 있는 3갈래장식과 冠 중앙에 있는 房飾을 볼 수 있다. 日月飾이나 鳥

39) 高春明외1인, 中國歷代服飾, 학림출판사, p.90.

40) 김정희, 조선 후기 지장보살화의 연구, 한국정신문화원 석사논문, p.22.

41) 최완수, 상계서, p.274.

42) 불교예술 137,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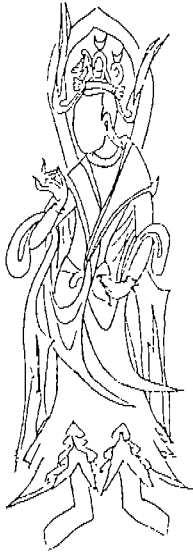


圖2-6 435窟 南壁前部菩薩

翼飾은 사산의 전형적인 冠裝飾의 一部로서 말하고 있다.<sup>43)</sup> 사산조에서 鳥翼은 승리의 신, 베레토라구나의 상징으로 將軍의 冠飾이 된 것으로 武裝과 수반되는 경우가 壓倒的이라고 하였다.<sup>44)</sup>

## 2) 上衣

天衣를 보면 X형으로 교차하는 天衣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한 2중천의를 볼 수 있다. 圖2-4는 襟장식을 한 天衣를 어깨를 덮으면서 가슴앞으로 해서 배꼽에서 X자로 교차한 후 양 팔에 한 가닥씩 두루고 있으며 양 끝은 대단히 날카롭게 나타내고 있다. X형天衣 형태는 北魏에서 처음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나라 보살상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X형天衣는 중국에서 5C 후반에서 隋代에 걸쳐 유행한 것으로 인도의 X형영락의 이미지가 중국의 전통적인 기호·풍습 즉 左右對稱을 선호하는 性向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

고있다.<sup>45)</sup> 圖2-5는 3屈자세 즉 인도조각양식을 반영을 보여주는 像으로 나체인 상체에 등뒤에서 양 어깨를 거쳐 넘어온 2가닥의 긴 천을 배꼽에서 등근버클을 사용하여 X형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뜨리고 있는 것으로 끝단이 물고기 꼬리와 같다. 또한 일반적인 형태로 착용한 天衣를 머리뒤에서 나부끼며 내려와 팔에서 한번 감아 늘어뜨리고 있는 또 다른 天衣가 보인다. 등근버클은 중국 전국시대부터 왕후, 귀족들이 허리에 璧,環착장의 風이 버클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環이라고 하는데 AD 5C 후반에서 隋代에 걸쳐 盛行하였다고 한다.<sup>46)</sup> 前者의 것이 길어져 양팔에 걸치면 X형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2重天衣를 착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보살상과 비슷하게 X형으로 披巾을 착용한 것을 河南城 鄧縣出土 南北朝彩色畫像磚에 陽刻된 像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47)</sup> 모두 長裙위에 大袖의 포를 입고 어깨에 披巾을 걸치고 허리부위에서 고정시키면서 길지않은 피건 나머지를 늘어뜨리는 모습이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圖2-6은 圖2-4와 같이 어깨를 덮고 복부에서 교차하여 X형天衣를 형성하지만 팔꿈치에서 늘어뜨리는 모양이 다르다. 팔꿈치에서 바깥으로 天衣중간을 접은 것을 넘기고 天衣끝단은 그대로 팔꿈치안으로 늘어뜨리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天衣형태는 다음왕조인 西魏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北魏의 天人과 菩薩 등의 의복의 끝단과 天衣자락이 툽날형으로 예리하게 처리되는데 北魏에서 西魏의 보살상에서 절정을 이룬다<sup>48)</sup>고 하였다. 圖2-3의 보살은 僧袈裟<sup>49)</sup>같은 上衣를 왼쪽어깨에서 오른쪽겨드랑이 아래로 넓게 드리우고 있는데 또다른 上衣를 보여

43) 정예경, 불교예술, 197, pp.87-103.

44) 상계서, 재인용, p.109.

45) 田中政江, 菩薩像의 X字狀天衣とその中心飾としての環について, 美術史研究, 7, pp.30-33.

46) 田中政江, 상계서, pp.36-42.

47) 중국역대복식, p.91

48) 한국미술사학회, 고구려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1996, p.181.

49) 井筒雅風, 法衣史, 雄山閣出版, 1982, pp.17-24.

袈裟史, 雄山閣出版, 1982, pp.26-27.

주는 것으로 天衣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별도로 착용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僧袈裟로 보아도 될 것이다. 北魏의 頭髮은 앞가리마에 垂髮, 削髮이고 頭巾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頭巾은 기마유목민족의 防寒用 頭飾이 頭巾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중국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보관의 日月, 樹立飾 등에서는 페르시아나 印度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깨를 덮고 環을 이용한 X형 天衣 형성은 불교미술이 中國化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즉 인도의 X형 영락 이미지가 中國人의 性向에 맞게 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前代와 다른 것은 偏袒右肩의 上衣와 X형 天衣 또는 2重 天衣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中國風이 짙어지는 것은 불교전파방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5C중엽까지는 河西지방에서 불교전파는 西에서 東으로 들어오는 狀況이었으나 6C에는 중국본토불교의 영향이 미치는 즉 東에서 西로 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많은 西域僧들이 장안, 낙양 등에서 漢譯불교사업 등으로 불교부흥을 일으킨 것과 깊은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고유의 문화가 정립되지 못했던 非漢族인 北魏왕조는 漢文化, 불교등의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마유목민족다운 활동성과 기동성을 나타냈다. 이에 4C~6C동안 魏王朝下에서 돈황이 번영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석굴이 造營되고 보살상에도 그들의 독특한 용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西魏(535~556)

#### 1) 頭飾

三衣 : 승가리 : 가장 길에 입는 옷,  
 울타라승 : 單衣로 상반신에 착용한 것,  
 안타회 : 裙으로 허리에 두르는 單衣.

內衣 : 승저지 : 덮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왼쪽어깨에서 오른쪽겨드랑이로 해서 입는 장방형의 포.  
 니원승 : 장방형으로 하반신에 직접입는 것

頭髮은 垂髮보다 髻와 削髮이 보인다. 頭巾, 日月, 樹飾 寶冠 등은 그대로 계승되었고(圖3-1) 日月飾과 식물문이 있는 三飾冠(圖3-4)도 보인다. 특히 圖3-2는 蓮華로 생각되는 꽃모양의 수식을 한 寶冠을 하고 있는데 花鬘冠<sup>50)</sup>이라고 하였다.

#### 2) 上衣

前代에 이어 버클이나 매듭을 이용해 X형 天衣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점은 식서를 이용한 天衣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圖3-1은 어깨를 완전히 덮고 복부에서 環을 이용해 X형을 형성하여 天衣양끝을 팔에 걸치고 있으며 大袖袍의 허리띠도 環을 통과하고 있다. 수구가 넓어지고 上下가 연결된 긴 大袖袍를 착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풍취가 짙게 풍기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같이 대수포를 착용한 보살상은 西魏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中原의 영향이 컸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圖3-2는 大袖袍를 착용하고 그 위에 길고 넓은 天衣를 어깨를 덮는 X형으로 걸치고 있으며 긴 포로 묶은 布帛帶는 앞으로 늘이고 있다. 衣 도련이 燕尾모양으로 길게 땅에 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圖3-3은 나체인 상체에 環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양 어깨에서 내려온 天衣를 묶어 매듭을 짓고 각각 양팔에 걸쳐서 X형을 만들고 있다. 布帛帶와 天衣 끝이 가지런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식서재단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식서재단형의 天衣와 帶는 西魏와 北周의 특징이다. 西魏 菩薩服飾의 특징은 大袖袍등으로 보아 중국풍이 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식서재단의 天衣가 나타났고 頭巾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垂髮보다 髻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日月樹등이 장식된 寶冠髻, 三飾冠이 나타나고 X형 天衣에 버클 즉 環 또는 天衣



圖3-1 288窟 窟室內景菩薩 圖3-2 285窟 北壁東起第1, 2禪室之間壁畫菩薩



圖3-3 432窟 中室柱東 圖3-4 249窟 南壁中央說法圖 向龕南側菩薩

뒹은 매듭이 지어 보인다. 大袖袍를 여민 布帛帶를 길게 나타내어 장식적이다.

4. 北周(557~581)

1) 頭飾

前代와 비슷한 日月樹飾寶冠, 頭巾, 三飾冠 등이 계승되고 앞가리마와 垂髮, 鬢등을 볼 수 있다.

2) 上衣

上衣의 天衣는 길이가 길어져 양쪽 팔에 걸치므로 나타나는 U형천의가 圖4-2보살에서 나타나 北周에서는 X형, U형, 일반형천의를 모두 볼 수 있다. 圖4-2의 U형천의는 폭이 좁고 긴 천을 복부아래부분에서 U형을 2개 형성하며 양끝을 각 팔에 걸치고 있다. 이와같은 U형천의를 중국의 독자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51)</sup> 또 다른 上衣가 보이는데 圖4-1는 偏袒右肩식의 승저지를 착용하고 그 위로 天衣를 착용하는데 머리뒤에서 나부끼며 내려와 오른쪽 팔에 2번 정도 감아서 늘어뜨리고 있다. 北周보살복식의 특징은 鬢가 나타나고



圖4-1 428窟 龕室內景菩薩 圖4-2 297窟 西壁菩薩

頭巾과 日. 月. 樹立飾寶冠, 三飾冠이 이어짐을 볼 수 있다. U형天衣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X형, 일반형天衣와 內衣형태의 僧祇支가 보이고 팔에 天衣를 많이 감는다. 西魏와 같이 식서의 천의와 허리띠의 장식성을 볼 수 있으며 下衣 즉 裙에서 인도복식영향이 두드러지는 도티를 볼 수 있다.

51) 田中政江, 상계서, p.33.

5. 隋(581~618)

1) 頭飾

頭髮은 前代의 앞가리마나 髻, 垂髮등이 계승되었다. 그러나 圖5-2는 앞가리마에 垂髮를 볼 수 있다. 이전의 垂髮과는 달리 굵은 열레빗으로 빗어서 몇가닥씩 어깨에 걸치고 있는 형태로써 각각의 머리가닥이 약간 파상형을 이루면서 머리끝이 조금 말려있다. 이와같은 머리형태는 5세기후반 인도 사르나스 출토 觀音菩薩立像의 垂髮형태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굵은 열레빗을 사용한 듯 일정하게 잔골을 타고 있으며 그 끝이 또한 위로 걸어 올린 표현이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頭髮表現은 굽타시대 힌두조각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고<sup>52)</sup> 이러한 머리형태는 고대 그리스 여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약간 다른점은 그리스상의 파상의 머리가닥끝은 말려있지 않고 그대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걸치고 있다는 것이다. 寶冠은 三飾冠이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冠帶에서 수식물로 樹, 연화, 팔메트 등을 冠帶에 정·양측면에 번갈아 立飾을 한 형태이다. 관대 양 끝으로 띠가 어깨까지 늘어져 있기도 하고 짧은 것도 있다. 정수리 위에 髻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관은 인도의 굽타계보관으로 보고 있고 인도보살, 미륵, 시바신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53)</sup> 또한 이와는 다른 것이 圖5-3에서 볼 수 있는데 사산의 영향이 돋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冠帶에 3개의 입식이 있는 것은 같지만 관대끝의 장식이 식물문으로 되어있고 그 뒤로 鳥翼飾이 또한 보인다. 중앙에 있는 입식가운데에서 도식적인 새장식으로 생각되는 것이 돌출형으로 장식된 것이다. 이외에도 中央立飾위에 日月飾이 장식되어있는 冠도 볼 수 있다. 또한 관띠가 길어져 天衣같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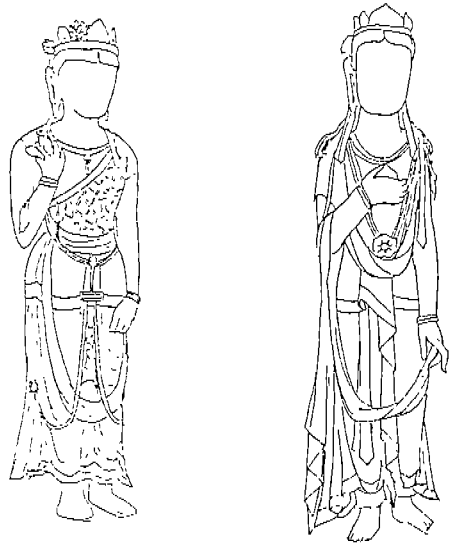


圖5-1 427窟 主室北壁前部菩薩 圖5-2 425窟 北壁菩薩



圖5-3 276窟 西壁南側菩薩

용되어 팔에 걸치는 것이 있고 짧게 귀볼까지 늘어져 끝에는 술장식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는 왕의 면류관에 보이는 纒, 鑷이나 紉과 유사함을 생각할 수 있다. 왕의 귀밝음이나 옴은 소리만 들기를 의미하는 것처럼 宗教像으로서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나타난

52) 최완수, 상계서, p.182.

53) 鄭禮京, 상계서, 194, pp.97-99.

두발을 묶고 髻주위를 (간격을 두고) 寶飾으로 장식하고 나머지머리는 그대로 어깨에 늘어뜨리는 것으로 굽타2형 식보관으로 분류하였다.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같은 긴 끈장식은 우리나라의 고려불화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上衣

天衣는 X형은 사라지고 U형과 일반형천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달라진 僧祇支를 볼 수 있는데 어깨를 드러내는 tank top이나 sundress 같은 형태에 끈이 비스듬히 1개 달려 있다. 北周와 같이 1장의 천을 두른 것이 아니라 마치 재단을 해서 착용한 것 같은 것이 前代와 다르다(圖5-1). 隋代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재단형승저지는 주로 왼쪽어깨에 끈을 걸치고 복부를 가리는데 僧祇支 중간 즉 허리부위를 끈으로 묶기도 하였다. 어깨 끈과 僧祇支 윗도련은 異色襪裝飾을 하였고 승저지에는 마름모, 연주문과 그 속에 새·식물·화문 등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무늬는 사산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다. 天衣는 U형을 형성한 디자인으로 폭이 좁고 길이는 매우 길다. 어깨를 덮으면서 팔에 걸치는 일반적인 형태도 보이지만 주로 앞에 U형을 1~2개 형성하는 天衣가 보인다. 秀骨清像의 육감적인 조각형태에 가늘고 긴 天衣를 복부와 무릎부위에서 각각 U형을 형성하면서 팔에 걸치고 있다. 그러므로 X형을 만들면서 사용한 環이나 매듭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隋代부터 보살상에서 X형영락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U형천의를 중국의 독자적인 天衣로 보는 이유가 隋代로 들어서면서 서방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X형의 모티브가 영락으로 옮겨가고 天衣는 U형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隋代의 보살복식을 보면 끈이 말린 굵은 열레머리의 垂鬘를 볼 수 있으며 髻가 이어지고 寶冠은 주로 굽타계보관으로 보이는 三飾冠이 樹, 蓮華, 鳥翼, 日月飾 등의 立飾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관띠가 천의같이 매우 길어서 팔에 걸치는 것과 술장식이 있는 짧은 것 2개 있고 tank top같은 재단형 僧祇支가 보이기 시작하고 치마허리가 아닌 끈 묶음이 가슴에 있다. 온 몸을

장식하는 X영락장식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X형天衣 디자인은 사라지고 모두 U형天衣가 보인다. 僧祇支와 裙등에 연주문, 마름모문 등의 무늬가 화려하게 보이고 육감적인 조각 형태를 나타내고 관띠, 허리띠 등의 여러 끈장식이 패션화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璽珞에 여러 갈래의 천장식을 묶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고 허리띠가 장식적인 요소로 질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唐(618~907)

### 1) 頭飾

頭鬘은 髻가 대다수를 나타내고 소수의 垂鬘 등을 볼 수 있다. 髻의 형태가 발달하여 여러가지의 高髻, 螺髻 등을 볼 수 있다. 圖6-9는 티벳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보살상으로 高髻와 垂鬘을 하였는데 각 가닥의 머리끝이 말려있음을 알 수 있다. 圖6-5는 관정면에 座佛이 있는 보관을 쓰고 垂鬘된 머리가 곱슬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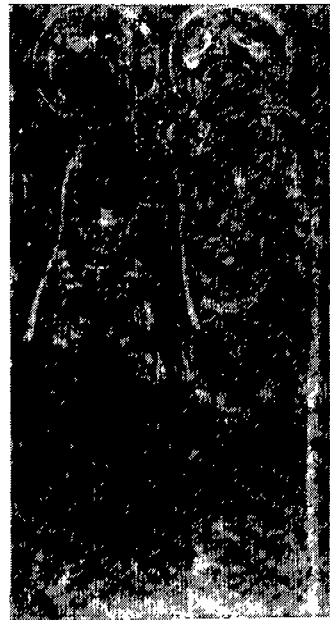


圖6-1 57窟 西壁北側菩薩



圖6-2 220窟 阿彌陀經變菩薩



圖6-3 323窟 南壁西側下部菩薩



圖6-4 45窟 西壁龕內南側菩薩

술머리는 사산조 장식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왕의 머리칼이 곱슬거리며 늘어져 있고 간다라의 머륵보살상의 두발표현에서도 볼 수 있다.<sup>54)</sup> 圖6-1은 高髻에 나머지를 어깨에 수발을 한 형태이고 보관을 썼는데 三飾冠 형태이다. 왼쪽보살은 冠帶에 중앙과 양 측면에 작은 원이 둘러싼 큰 원장식이 하나씩 있고 중앙입식 위로 다른 장식이 수식되어 있다. 側面圓裝飾뒤로 鳥翼飾이 보이고 관대 양끝에 階代와 같이 술장식이 있는 관대가 짧게 달려있다. 오른쪽보살의 관도 삼식관으로 관대에 중앙과 양측면에 작은원이 둘러싼 원장식이 있으며 특히 중앙의 원장식위로 일월식이 있다. 중앙과 양측면 원장식 사이로 비스듬히 식물문이 이어져 있다. 이러한 垂髮이나 連珠文, 日月飾, 鳥翼飾 등은 전술한 바와 같이 페르시아와 인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바빌로니아 문명기 이래 내려온 태양. 태음 숭배사상과 불교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묻어온 인도의

태양숭배사상이 재결합되면서 日月飾冠이 보관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sup>55)</sup> 이것은 사산조 왕관이나 銀製鍍金酒拜의 內面 장식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圖6-2는 넓은 관대에 3개의 입식이 있고 그 위에 일월식이 있는데 이러한 넓은 관대에 입식한 형태의 보관은 隋에서 唐에 걸쳐 흔히 볼 수 있는 관형이다. 더구나 넓은 冠帶에 정면과 양측면에 3개의 타원형장식이 부착되고 그 위로 日月飾이 있는 것은 사산의 영향을 받은 소그드 여성의 기본보관으로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어 돈황의 여러 보살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sup>56)</sup>이라고 하겠다. 圖6-5는 이와같이 넓은 冠帶에 3개의 수식이 정, 양측면에 있으나 日月飾은 없고 중앙입식에 좌불이 새겨 있으며 들레에 작은 원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觀音菩薩을 형상화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冠帶 양 끝에는 관띠가 길게 있어 천의처럼 팔에 걸쳐고 있는데 唐代에도 冠띠가 天衣와 같이 팔에 걸쳐있음을 볼 수 있다. 圖6-7은 鬚를 둘러

54) 최완수, 상계서, p.145.

55) 최완수, 상계서, p.145.

56) 鄭禮京, 상계서, 197, pp.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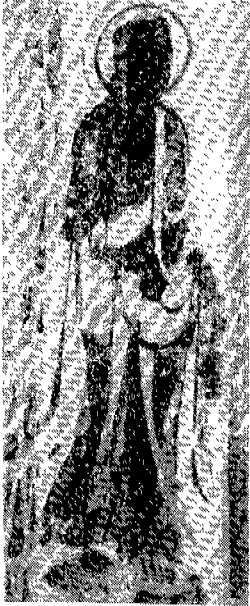


圖6-5 320窟 西壁龕內南側菩薩



圖6-6 194窟 西壁龕內南側菩薩



圖6-7 220窟 通道南壁龕內菩薩

싸고 나머지를 뒤머리에 두건형태로 놓아두고 등근 입식을 布冠帶에 정, 측면에 부착하고 있다. 뿔을 장식한 뿔珠가 三飾冠의 중앙입식보다 크게 나타나 보이고 그 위로 더 높게 꽃봉오리장식을 하고 있다. 뿔珠는 본래 佛像의 頭上에서 뿔를 묶은 실용적인 것에서 장식적으로 변하다가 상징적인 神秘化物로 변한 수식물이다. 흥미로운 것은 흰색으로 頭巾과 布冠帶를 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길게 늘어지는 관띠도 흰색이다. 흰옷을 입은 보살은 이외에도 다수 보이고 있는데 白衣觀音은 기본적으로 印度의 白蓮華를 귀히 여기고 숭상하는 사상에서 근거를 들 수 있다. 즉 白蓮華에 住處하는 보살이라는 의미로 머리에서부터 흰 天衣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으로 1장의 천, 또는 머리와 신체를 각각 따로 덮는 2장의 천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信仰的으로 冠髻이 衆生을 위한 方便의 근기에 따라 應現身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57)</sup> 또한 흰 옷을 입은 마니교와의 상호관계도 고려해 볼 수 있어 흥미롭다고 하겠다. 또한

頭巾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두건은 北魏에서 北周까지 보이는 형상이지만 隋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고 非漢族의 복식의 한 특징이 보살복식에 유입된 것으로 전술한 바 있다. 隋代보다 唐의 開放的인 서역과의 교역이 더욱 폭 넓은 복식의 형태를 형성하도록 한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圖6-9는 티벳풍의 보살상으로 正面冠으로 파악할 수 있다. 地髮(冠과 이마사이의 머리)를 어느때보다 단정히 한선으로 처리하여 단정하게 보이고 관전체에 寶石象嵌을 하고 아마도 縷金技法으로 보이는 작은원이 부착되어 있다. 象嵌法이나 縷金法은 BC2000년 중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공예기술이었다. 이것이 서방과 인도, 중앙아시아로 전파된 것이라고 하겠다. 圖6-3의 보관은 삼식관으로 관대에 3개의 立飾이 있는데 冠正面 立飾은 구름문이고 양측면은 연화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여러 작은 수식이 달려 있다. 또한 冠帶 양끝에 관띠가 아주 길게 늘어져 마치 천의처럼 팔에 감거나 한 손으로 잡고 있으

57) 오세례, 조선시대 後佛壁裏面 白衣觀音에 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pp.1-29.



圖6-8 159窟 西壁龕內南側菩薩



圖6-9 14窟 南壁西側菩薩



圖6-10 196窟 中心佛前上北側菩薩

며 이국적인 보살상으로 서방의 영향보다는 티베트의 영향을 생각하게 한다.

## 2) 上衣

唐代에 전반적으로 U형, 일반형天衣와 條帛, 倍襪支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일반형 천의를 보면 등뒤에서 어깨로 넘어와 팔에 감기는 형태로 北凉에서 보이는 머리위에서 나부끼던 형태와는 다르게 보다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圖6-10). U형天衣는 隋代이후 계속되는데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으나 圖6-7를 보면 어깨를 덮으면서 U형을 2개 형성하는 天衣와 별도로 등뒤에서 그대로 양 옆으로 지느러미 같은 것이 보인다. 즉 등 뒤로 여러 가닥의 층진 천장식이 보이는데 머리뒤에 장식한 띠 장식이거나 또는 영락에 장식한 천장식의 변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등뒤에서 양 옆으로 층진형태의 장식이 나타나는 것은 돈황막고굴 가운데에서는 이 그림에서 처음 볼 수 있는 것으로 北魏나 西魏에서 보이는 독특한 X형天衣가 양옆으로 誇張되어 圖式的인 형태로 묘사된 것이 있다. 그러나



圖7 王子像頭部, 前5C  
(觀音像 頭部の 原形으로 보기도 한다)

어느 것도 단정지울수 없지만 天衣의 도식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唐中期 이후로 영락이 보이지 않으며 머리뒤장식 띠도 무리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天衣는 우리나라 보살상에서 같은 장식이 있는 보살상

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문화흐름의 흥미로운 단서라고 생각한다. 條帛은 唐代에서 보이는 上衣으로써 이것은 나체인 상반신에 왼쪽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아래로 비스듬히 착용하는 帶狀의 布로써 왼쪽가슴부위에 끝자락을 걷어넣어 늘어뜨리고 있다. 인도의 귀족이 착용한 布라고 하였다.<sup>58)</sup> 唐代에는 天衣보다 條帛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로 唐 全時代에 걸쳐 쉽게 볼 수 있다. 圖6-2의 條帛은 왼쪽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걸치면서 왼쪽 가슴부위에서 매듭을 짓고 나머지 긴 천을 왼팔에 天衣처럼 걸치고 있다. 즉 긴 천을 偏袒 右肩臂으로 몸에 두루고 나머지를 팔에 천의처럼 걸치거나 늘어뜨리는 것이다. 이 같이 긴 條帛은 시대가 갈수록 폭도 좁아지며 길이도 짧아져 형식적으로 변한다. 唐中期 한때에는 天衣는 보이지 않고 조백만 上衣역할을 담당 하였다. 圖6-4의 조백은 왼쪽가슴의 끝자락 마무리를 둥글게 늘여지게 하였고 圖6-9의 조백은 투명한 천에 작은 連珠紋을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이 조백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隋代以後 나타난 재단형 僧祇支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圖6-6은 목을 둥글게貫 貫頭型의 僧祇支에 허리띠를 묶고 있으며 화문이 확인된다. 圖6-8의 菩薩은 재단형 僧祇支와 天衣, 裙에

雲紋, 唐草紋, 花紋등이 어우러져 있어 가장 화려하고 사실적인 승저지를 치마 밖으로 꺼내어 오버 블라우스형식으로 착용하고 허리띠를 묶었다. 이와 같이 승저지와 조백, 天衣 등에 마름모, 화문, 당초문, 운문, 작은 連珠紋 등이 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양은 下衣인 裙에도 있으면서 隋代보다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後代로 갈수록 티벳의 영향을 나타낸다. 이것은 8C 후반부터 70년간 吐蕃이 티벳(吐蕃)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방과 중국의 교역은 물론 불교승려왕래등도 중단되었다. 唐代는 X형 天衣는 보이지않고 상반신은 隋代보다 더 노출시키면서 간편하게 上衣를 착용하였으며 특히 조백이 짧아지고 형식적인 형태로 변하면서 더욱 상반신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과다한 노출의 보살상은 풍만한 신체노출의 인도조각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西魏의 신체를 감싸는 大袖袍는 중국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풍토나 기후등과 매우 유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唐代의 보살복식의 특징은 여러가지 락와 사산조와 인도의 영향의 여러가지 寶冠 즉 雲紋, 連珠, 日月飾 등의 三飾冠과 티벳풍이 엮보이는 正面冠이 나타났고 관미가 天衣처럼 팔에 걸쳐 있다. X형 天衣를 제외한 일반형·U형 天衣·재단

敦煌莫高窟 菩薩服飾圖表

	頭 髮	寶 冠	上衣(天衣, 僧祇支, 條帛 등)
北凉	앞가리마에 垂髮형머리. 앞에서 짧게단발	寶冠. 三飾冠	일반적인 天衣(머리뒤나 어깨에서 나누끼며 팔꿈치에서 한 번 걸치고 길게 늘어짐)
北魏	앞가리마에 垂髮형머리. 削髮. 頭巾	寶冠. 三飾冠	X형 天衣. 2重 天衣(披巾과 天衣). (僧袈梨)
西魏	垂髮. 髻. 削髮. 頭巾	寶冠. 三飾冠	X형 天衣. 大袖袍
北周	앞가리마. 垂髮. 髻. 頭巾	寶冠. 三飾冠	U형, X형, 一般型 天衣. 僧祇支.
隋	앞가리마. 髻. 垂髮	三飾冠(굽타계)	U형, 一般型 天衣. 裁斷型 僧祇支
唐	髻. 垂髮	三飾冠(소그드계) 正面冠	U형, 一般型 天衣. 條帛 裁斷型·貫頭型 僧祇支

58) 田中義恭외1, 目でみる佛像·菩薩, 東京美術, 1986, p.25.

형과 貫頭衣형 僧祇支·條帛 등을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채로 볼 수 있다. 條帛은 唐代부터 나타난 복식형태로 점차 형식적인 형태에 불과하였고 등 뒤로 층을 이루는 天衣(소위 지느러미모양)가 보이는데 이것은 北魏 등의 독특한 X형天衣가 과장되어 圖式的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敦煌圖案은 중국미술사상에 불후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雲紋, 火焰紋, 忍冬紋, 蓮華紋, 石榴紋 등에서 형형색색의 卷草紋, 吉鳥, 祥獸紋에 이르기까지 死生, 變化, 誇張, 壓縮 등의 장점을 모두 발휘하였다. 초기 敦煌石窟층에는 대부분이 인동문, 연화문, 또는 인동과 연화문을 혼합하여 응용하고 있고 忍冬紋은 中國北朝시기에 서북지구 소수민족들이 특히 좋아하는 문양이었다고 한다.<sup>59)</sup> 이러한 여러문양이나 條帛, 투명한 복식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唐代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장식적이며 화려하지만 中期로 가면서 사실적이며 일반부녀복식같은 형태로 간소화되어 보이고 曆末期에서는 티벳의 영향이 寶冠이나 瓔珞 등에서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 V. 결 론

時代別 菩薩服飾의 특징을 알아보면 北凉의 보살복식은 중후한 실루엣이 특징으로 앞가리마에 垂髮형머리와 冠飾은 寶冠과 三飾冠으로 사산조 영향으로 보이는 관띠가 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띠는 점차 길어지고 다양해져 장식성을 나타내고 일반적인 天衣 착용과 여러가지 垂飾物들은 간다라와 마투라 문화가 혼합된 인도, 페르시아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魏의 頭髮은 앞가리마에 垂髮, 削髮이고 頭巾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기마유목민족의 防寒用 頭飾의 변형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으며 日月樹飾의 寶冠과 三飾冠이 보인다. 偏袒右肩의 上衣와 2重天衣가 나타나고 어깨를 덮고 環을 이용한 X형

天衣 형성은 불교미술이 中國化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고유의 문화가 定立되지 못했던 非漢族인 北魏왕조는 외래문화수용에 寬待하여 기마유목민족다운 활동성과 기동성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4C~6C동안 魏王朝下에서 돈황이 번영하고 또한 많은 석굴과 佛·菩薩像이 造成되고 그들의 독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西魏 보살복식의 특징은 大袖袍 등의 중국풍이 나타나고 식서재단의 天衣가 보이고 頭巾이 계승되었다. 垂髮보다 髻를 더 볼 수 있으며 日月樹 등이 裝飾된 寶冠, 三飾冠과 X형天衣에 버클 즉 環 또는 天衣 묶은 매듭이 보인다. 大袖袍를 여민 布帛帶를 길게 나타내어 장식적이다. 北周보살복식의 특징은 髻와 頭巾과 日月樹飾寶冠, 三飾冠이 계속되고 U형天衣가 시작되었다. X형, 일반형天衣와 內衣형태의 僧祇支가 보이고 팔에 天衣를 많이 감는다. 西魏와 같이 식서의 天衣와 허리띠의 장식성을 볼 수 있으며 인도복식영향이 두드러지는 도티를 볼 수 있다. 隋代의 보살복식을 보면 끝이 말린 굵은 열레머리의 垂髮과 髻가 이어지고 굽다게보관으로 보이는 三飾冠이 樹, 蓮華, 鳥翼, 日月飾 등의 立飾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관띠가 天衣같이 긴 것과 술장식이 있는 짧은 것이 있고 tank top같은 재단형 僧祇支와 X영락장식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X형天衣 디자인은 사라지고 모두 U형天衣가 보인다. 僧祇支와 裙등에 연주문, 마름모문 등의 무늬가 화려하게 보이고 관띠, 허리띠와 瓔珞에 여러 갈래의 천장식등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장식적인 요소로 짙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唐代의 보살복식의 특징은 여러가지 髻와 사산조와 인도의 영향의 여러가지 寶冠과 三飾冠, 티벳풍이 엿보이는 正面冠이 나타나고 관띠가 天衣처럼 팔에 걸쳐있다. X형天衣를 제외한 일반형·U형天衣·재단형과 貫頭衣형 僧祇支·條帛 등을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채로 볼 수 있다. 條帛은 唐代부터 나타난 복식형태로 점차

59) 이수용, 敦煌文學과 藝術, 건대출판, p.290.

형식적인 형태에 불과하였고 등뒤로 층을 이루는 天衣(소위 지느러미모양)가 보이는데 이것은 北魏 등의 독특한 X형天衣가 과장되어 圖式的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러문양이나 條帛, 투명한 복식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唐代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장식적이며 화려하지만 中期로 가면서 사실적인 형태로 보이고 唐末期에서는 티벳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服飾을 통한 주변국의 영향관계를 보면 觀音像 寶冠의 起源으로 보는 아나히타 寶冠과 왕의 冠 등에서 휘날리는 긴띠, 승리를 상징하는 鳥翼飾, 인도·페르시아의 태양숭배사상과 관련한 日月飾, 기후·풍토적인 산물인 植物紋 등에서 사산조와 인도의 영향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隋代에는 굽타계 寶冠, 唐代에는 소그드계 寶冠과 8C 후엽부터 70년간의 티벳의 영향이 보이는 冠의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頭髮은 隋代의 垂髮형머리에서 인도 굽타시대 사르나스 보살상이나 그리스 아카익시대 여인상 등에서 유사한 垂髮를 볼 수 있어 상호교류를 짐작할 수 있으며 北魏代부터 보이는 頭巾은 기마유목민족의 防寒用 頭飾과의 영향을 생각하게 한다. 頭巾을 착용한 地藏圖로써 서역과 고려와의 교류도 짐작케 한다. 天衣는 印度에서는 Dupatta라 하여 남녀공용으로 착용하였고 사산조에서는 아나히타像이나 중국자료에서 天衣 착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은 天衣는 大乘佛敎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經典翻譯時 ‘天衣’ ‘天妙衣’라 하여 종교적으로 理想化시켜서 嚴肅함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인도조각양식을 보이듯 3굴자세(S형태)를 볼 수 있으며 X형天衣에서 보이는 環은 보살상의 중국화의 一面으로 볼 수 있다. 河西지방에서 5C중엽까지는 불교전파가 西에서 東이지만 6C에는 활발한 漢譯佛敎등 불교 부흥으로 東에서 西로 향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中原의 영향은 西魏 大袖袍와 北周부터의 U형天衣 등에서 알 수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인도의 X형모티브가 영락으로 옮겨

가고 중국인의 성향에 맞추어 U형天衣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외에 사산조의 여러문양동이 頭飾은 물론 天衣, 條帛, 僧袷支 등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菩提像의 服飾에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의 여러 복합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주변국의 여러 문화를 소화한 佛敎라는 媒體와 그것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東西文化의 門戶였던 敦煌을 통해서 古代아시아와 西方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魏書

舊唐書

妙法蓮華經

- 임영애, 서역불교조각사, 일지사
- 이수용, 돈황문학과 예술, 건대출판, 1990
- 박도화, 菩提像, 대원사, 1990
- 최완수, 佛像研究, 지식산업사
- 벤자민 토울랜드저, 최민영역, 동서미술론, 열화당
- 디트리히 쾨켈저, 백승길역, 佛敎美術, 열화당
- 渡邊照宏저, 한경수역, 佛敎史의 展開, 불교시대사, 1992
- 불교통신강좌 4, 불교통신교육원
- 溫玉成저, 배진달역, 中國石窟과 文化藝術, 경인문화사
- 野上俊靜외4, 권기중역, 中國佛敎史, 동대출판, 1985
- 실크로드미술전, 국립중앙박물관, 1991
- 한국미술사학회, 高句麗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1996
- 황원구, 東洋文化史略, 연대출판, 1993
- 鄧健靑, 돈황막고굴 3, 평범사
- 中國5千年 女性裝飾史, 京都書院
- 井筒雅風, 法衣史, 雄山閣出版, 1982
- \_\_\_\_\_, 袈裟史, 雄山閣出版, 1982

- 高春明의 1, 中國歷代服飾, 학림출판사
- 杉山二郎, 佛像, 柏書房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中世編)
- 田中義恭의 1, 目でみる佛像·菩薩, 東京美術, 1986
- 金岡秀友의 2, シルクロードと佛教, 大法輪閣, 1982
- アジア歴史事典 7, 평범사
- 아시아佛教史(中國篇). 佼成出版社
- 정병조, 문수보살, 동대학사학위논문, 1987
- 안윤수, 보살상의 영락장엄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84
- 김석관, 11면관음상의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89
- 최정원, 北魏 佛像服制의 중국화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미술사연구 8, 1994
- 민병훈, 중앙아시아, 한국복식12, 1994
- 오철환, 古代쿠차(龜茲)音樂考, 중앙아시아연구 1, 1997
- 최영순, 韓國의 菩薩服飾에 관한 研究, 동대학사학위논문, 1991
- 박선영, 삼국시대 관음보살상에 대한 연구, 동대학사학위논문
- 오세례, 조선시대 후불벽리면 백의관음에 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90
- 김정희, 조선후기 지장보살화의 연구, 한국정신문화원, 1982
- 제인그리핀, 실크로드와 돈황의 보고, 미술사연구 10, 1996
- 鄭禮京, 韓國반가사유상의編年に關する一考察, 佛教藝術194, 197.
- 田中政江, 菩薩像のX字狀天衣とその中心飾としての環について, 美術史研究 7.
- Dietrich Seckel. The Art of Buddhism, Yew York. Crown Pub. 1964
- Indian Costume. G. S. Ghurye. Popular Pralashan, 1951

- Indian Costume Coiffure and Ornament. Munshiram Manoharlal. Pub. 1975

## ABSTRACT

### A study on veil and head-dress of Bodhisattva in Dunhuang Mogaok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the hair, head-dress and clothing (upper clothing ; Veil, Samkaksika, Sash) of Bodhisattvas in Dunhuang Mogaoku of the period from Northern Liang Dynasty (421~439) to Tang Dynasty (618~907). The method of this research is to specially consider the figure and the change of clothing form : 'Dunhuang Mogaoku' 1st Volume-4th Volume. The Bodhisattvas' hair style are somewhat various : A part in her hair, Suibal, Gae, Sakbal. A part in Bodhisattva's hair is observed from Northern Liang Dynasty to Sui Dynasty. But Suibal had been continuous succeeded. Meanwhile, in the periods of Sui and Tang Dynasty, there were the hair styles whose ends were curled up. It is called Eulle Meoree. Especially, in Tang Dynasty various styles of Gae were appeared. Doogun was observed from Northern Wei to Tang Dynasty. There were three kinds of head-dress ; Samsikkwan (having 3 decoration), Bokwan and Jungmeunkwan (appeared in Tang Dynasty). Meanwhile, Sash let was become more and more decorative. The Upper clothing can be classify into Veil, Samkaksika, Sash, etc. Veil were observed in every period but X shaped one was form Northern Wei and U shaped one was from Northern Zhou Dynasty. After the period of Sui Dynasty U shaped Veil become preva-

lent. Samkaksika was observed for the first time in Northern Zhou Dynasty. Cutted samkaksika was appeared in Sui Dynasty and succeeded to Tang Dynasty. Poncho tyed Samkaksika was also observed in Tang Dynasty. In Western Wei Dynasty, Daesupo was used into outer garment, which us that chinese influence was deep tell. Sash showed up in Tang Dynasty and it is used for Veil for the whole period of the Dynasty. But using sash for veil

was formally hanged on going the late period of Tang Dynasty. We can observe the sun-moon decoration and the wings of a bird decoration at the Bokwan, Veil, Samkaksika and Sash, etc. It is was the influence of Sasan Persia and India. I will fill up the insufficiency of this study with continous research of ornament(Muktahara) and skirt of Bodhisattva and deeper inquiry of the relationship around the many countries.